

字義 離隔度로 본 異體字의 代替偏旁과 正字 偏旁과의 關係*

李圭甲**

<目 次>

1. 緒言
2. 離隔度 段階 設定
3. 離隔度 段階別 異體字例 考釋
4. 類型別 特徵
5. 段階別 形符代替異體字 考釋能力 向上 資料로 活用
6. 結語

1. 緒言

異體字 中에는 偏旁이 대체되어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이 중에는 다시 形符가 대체되어 만들어진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形符가 대체되어 만들어진 異體字들 을 보면, 대체되는 正字의 偏旁(被代替偏旁)과 이를 代替한 異體字의 偏旁(代替 偏旁)간에는 일반적으로 字義가 서로 통하고 있다. 그들 간의 字義는 字義의 類似 性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類似性이 높을수록 異體字의 正字가 무 엇인지 파악하기가 쉽다. 이와 같은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 聯關性이 어 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가에 따라, 그 차이를 離隔度로 표현하되, 離隔度를 단계별 로 나누고, 각 단계에 속한 異體字들에 대해 고찰할 需要가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18).

** 延世大學校 中文科 教授

이와 같이 偏旁代替異體字를 代替偏旁間의 字義 聯關性에 따라 離隔度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異體字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단계별 체계성을 갖추는데 있다. 偏旁代替異體字는 매우 많고, 이들은 類型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形符代替異體字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 字義의 聯關性이므로 이를 가지고 離隔度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離隔度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속한 類型의 異體字들에 대한 속성을 밝히면, 이 異體字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異體字 교육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에서는 먼저 離隔度의 段階를 字義의 聯關性에 따라 여섯 단계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각 類型에 속하는 異體字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類型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特徵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離隔度 段階 設定

離隔度의 차이에 따른 구분 경계가 약간 애매하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래의 山과 관계있는 것을 말할 때, 산과 유사한 모양의 언덕이 있을 수 있고, 또 산에는 골짜기가 있으므로 이 골짜기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산과 대비가 되는 것으로서 바다나 들판도 존재하며, 산에는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나무도 관계가 있는 가하면, 전쟁에서는 산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전투도 관계되고, 또 홍수가 있어나는 것은 산의 나무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도 산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字義가 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山’이 편방으로 사용되는 경우, 正字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山’을 ‘谷’이나 ‘田·木·水’로 代替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의미들은 모두 산과의 離隔度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이들의 字義上 離隔度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離隔度에 따라 字義間의 계층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각 계층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離隔度의 段階를 설정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異體字의 理解와 새로운 異體字의 解讀訓練 過程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正字의 被代替偏旁과 代替偏旁과의 字義 離隔度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여섯 단계의 離隔度 단계를 설정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超低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가 거의 유사하여 正字의 본래 字義가 어떠한 대부분의 경우 偏旁을 바꾸어 써도 큰 무리없이 異體字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것들은 대개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가 동일하거나, 혹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의 字義 범주가 언제나 通用이 가능한 것들이다. 예컨대 ‘足’과 ‘止’는 字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山’과 ‘丘’도 역시 비슷한 범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편방끼리는 서로 代替해도 字義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둘째, 低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두 偏旁의 字義가 비슷하면서 字義 範疇가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단계이다. 즉 字義 範疇가 언제나 通用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항상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정도로 밀접한 字義를 가진 것들. 예컨대 동물로서의 ‘牛’와 ‘馬’, 몸체로서의 ‘肉’과 ‘骨’, 음식 재료로서의 ‘米’와 ‘麥’, 식물로서의 ‘木’과 ‘艸’는 그 분야를 지칭하는 글자의 偏旁으로 사용될 때는 서로 代替해도 이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는 아니다.

셋째, 中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위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항상 거론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둘 사이가 경우에 따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서, 예를 들면 한쪽이 행동의 주체자이고 다른 한쪽이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혹은 代替와 被代替가 因果關係, 또는 主體와 客體의 관계인 글자들일 경우, 이

들이 서로 代替되어도 그 異體字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예컨대 被代替偏旁이 ‘人’일 경우, 이것(人)이 생성해내는 ‘心’은 경우에 따라 代替偏旁으로 가능하며, 또 ‘魚’가 被代替偏旁일 경우, 이것(魚)의 일부분인 ‘骨’로 代替가 가능하다.

넷째, 中上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본래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서로 의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위의 中級段階와 매우 근접한 離隔度이지만, 中級단계는 두 偏旁의 字義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데 반해, 이 단계의 두 편방이 갖는 字義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고 특정 상황에서만 서로 代替가 가능한 관계이다. 예컨대 ‘火’와 ‘金’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鍊’과 같은 경우에 正字의 字義는 불로 쇠를 녹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火’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金’과 ‘火’가 서로 代替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 속하는 글자들은 그 속성이 비교적 뚜렷하여 다른 단계의 글자들과는 그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섯째, 高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代替偏旁이 본래의 被代替 偏旁字義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마치 偏旁代替가 아닌 듯하게 보이는 경우이다. 代替偏旁의 字義가 被代替 偏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代替偏旁의 字義는 본래 正字의 被代替偏旁의 字義가 아닌 正字 그 전체 字義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賢’의 異體字인 ‘賢’은 정자의 偏旁인 ‘又’를 ‘忠’으로 代替한 것이다. 여기에서 代替와 被代替 관계인 ‘又’와 ‘忠’은 字義상으로 볼 때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代替偏旁인 ‘忠’은 본래 正字인 ‘賢’의 전체 字義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偏旁끼리는 字義가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異體字의 正字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경계는 명확하게 드러나며 다른 단계와는 혼동이 되지 않는다.

여섯째, 超高段階離隔度. 이 단계의 異體字들도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 關係는 전혀 없다. 다만 形體上으로만 유사한 偏旁으로 代替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異體字는 正字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人’과 ‘亻’, ‘火’와 ‘大’가 서로 代替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자형의 유사성

으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耳’와 ‘貝’, 혹은 ‘禾’와 ‘衣’가 서로 代替되는 경우는 그 正字를 추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 단계에 속하는 異體字들이 그 正字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하는 글자들도 ‘竹’과 ‘艸’가 편방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字形 類似로 간주해야 할지, 혹은 字義 類似로 판단해야 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는 그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단계와의 경계에 있어서 혼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離隔度 段階別 異體字例 考釋

다음은 이러한 離隔度別로 각 단계에 속하는 글자들을 선별하여, 해당 글자가 어떻게 偏旁을 서로 代替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超低段階離隔度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단계는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가 거의 유사하여 正字의 본래 字義가 어떠한 대부분의 경우 偏旁을 바꾸어 써도 별 무리없이 異體字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𡵓(β-山)¹⁾ 『重訂直音篇·山部』에 의하면 “𡵓, 與陀同. 𡵓, 同上”이라 하여, ‘𡵓’는 ‘陀’의 異體字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자는 正字인 ‘陀’에서 偏旁인 ‘β’가 同一한 字義를 갖는 ‘山’으로 代替되어 ‘𡵓’로 변한 것이다. 사실 언덕을 뜻하는 ‘β’나 작은 산을 뜻하는 ‘山’은, 의미상에서 모두 同一字族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비탈진 언덕을 뜻하는 ‘陀’를 ‘𡵓’로 바꾸어 써도 字義上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

1) 다음에서 활용되는 모든 異體字는 臺灣教育部에서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異體字字典』(<http://dict.variants.moe.edu.tw/>)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β’와 ‘山’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異體字에 있어서 매우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坂(阪)·嶮(險)·陁(陁)”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β’와 ‘山’이 字義上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처음 이들 글자를 만들 때 ‘β’를 먼저 取했는지, 아니면 ‘山’을 먼저 取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할 수 있다.

躄(足-止) 『字彙·止部』에 의하면 “躄, 俗蹲字”²⁾라 하여 ‘躄’은 ‘蹲’의 異體字라 하고, 『說文解字·足部』에 의하면 “蹲, 踞也. 從足尊聲”³⁾이라 하여, ‘蹲’은 ‘웅크리다’의 의미인 ‘踞也’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蹲’은 ‘踞也’의 뜻을 가진 글자인데, 여기에서 偏旁인 ‘足’이 필획이 감소된 ‘止’로 代替되어 ‘躄’이 되었는바, 이는 바로 簡化를 위한 異體字라 말할 수 있다. ‘足’과 ‘止’는 본래 모두 ‘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合體字의 한 偏旁으로 쓰일 때는 서로 互換이 가능하다.

2) 低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代替와 被代替偏旁들의 字義 範疇가 언제나 통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항상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정도로 밀접한 字義를 가진 것들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𩇛(馬-牛) 『集韻·去聲·禡韻』에 의하면 “駘, 𩇛, ... 『爾雅』, 牝曰駘. 或從牛”⁴⁾라 하여 ‘𩇛’가 ‘駘’의 異體字라 말하고 있다. 또한 『字彙·牛部』에서도 “𩇛, ... 與駘同, 牝馬也”⁵⁾라 말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駘’는 ‘牝馬’ 즉 ‘암컷 말’을 뜻하는 글자인데, 偏旁인 ‘馬’가 ‘牛’로 대체되어 異體字인 ‘𩇛’가 만들어진 것이

2) 梅膺祚, 『字典彙編·字彙』,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232쪽.

3)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69, 84쪽.

4) 丁度 等, 『字典彙編·集韻』,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298쪽.

5) 梅膺祚, 『字典彙編·字彙』,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276쪽.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正字通·牛部』에서는 “犗, ...蓋牝之通稱”⁶⁾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들을 종합하면 본래 ‘牝馬’를 가리키는 것은 ‘駘’이었는데, 形符가 ‘牛’로 代替된 ‘犗’가 생겨나면서, ‘犗’는 ‘駘’의 異體字임과 동시에 ‘駘’의 字義 한계를 넘어 일반적인 ‘牝’의 通稱으로까지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偏旁인 ‘馬’나 ‘牛’는 모두 ‘動物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駘’의 字義를 具現할 수 있어서 代替가 가능한 것이다.

麩(米-麥) 『集韻·上聲·語韻』에 의하면 “麩·麩, 蜜餌也. 吳謂之膏環, 或從麥”⁷⁾이라 하여 ‘麩’는 ‘麩’의 異體字라 하고 있고, 『正字通·麥部』에서도 “麩, 同麩. 從麩爲正, 改從麥非”⁸⁾라 하여 ‘麩’가 正字이며 ‘麩’는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어쨌든 ‘麩’는 正字인 ‘麩’에서 偏旁인 ‘米’가 ‘麥’으로 代替된 것이다. 그런데 ‘麩’는 字義가 ‘蜜餌’로서 쌀로 만든 국수 가락을 기름에 튀겨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米’는 ‘麩’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米’를 ‘麥’으로 代替한 것이 ‘麩’인데, 이는 字義上 ‘麩’를 만드는 재료라는 측면에서 ‘米’와 ‘麥’이 동등한 層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層位에 속하는 것은 字義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3) 中段階離隔度

이 단계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특정 분야에서 항상 거론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둘 사이가 경우에 따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서, 代替와 被代替偏旁이 主體와 客體, 혹은 因果 關係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6) 張自烈, 『續修四庫全書·正字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82쪽.

7) 丁度等, 『字典彙編·集韻』,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230쪽.

8) 張自烈, 『續修四庫全書·正字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820쪽.

越(足-走)『說文解字·足部』에는 “越, 踢也. 從足, 失聲. 一曰, 越也”⁹⁾라 하고, 『正字通·走部』에서는 “越, 俗跌字”¹⁰⁾라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越’은 ‘跌’의 異體字이며 字義는 ‘넘어진다’는 의미의 ‘踢也’이다. ‘踢’은 하나의 행동이며, 이 행동의 主體는 ‘足’이다. 그래서 ‘踢’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足’이 偏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 ‘足’이 실행하는 행위에는 ‘踢’과 같은 것도 있지만 ‘奔’이나 ‘走’, ‘跳’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越’에서의 ‘走’은 ‘足’을 ‘走’로 代替한 것이다. 여기에서 ‘足’과 ‘走’의 字義를 두고 비교한다면 ‘足’은 ‘行爲의 主體’이고 ‘走’은 ‘足’의 ‘行爲’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갖는 字義의 層位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蝕(虫-疒)『龍龕手鏡·食部』에서는 “蝕, 音食, 日月蝕也”¹¹⁾이라 말하고 있고, 『集韻·入聲·職韻』에서는 “蝕·蝕·蝕, 『說文』敗創也. 或省, 亦從疒”¹²⁾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하면 ‘蝕’은 ‘蝕’의 異體字이며, 이는 ‘虫’을 ‘疒’으로 代替한 것이다. ‘蝕’의 本義는 ‘좀먹다’는 뜻의 ‘敗創也’로서, 이 ‘敗創也’의 原因은 바로 ‘虫’이며, 이 ‘虫’으로 인해 ‘敗創也’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즉 ‘敗創也’는 결국 ‘疒’의 일종이기 때문에 ‘虫’을 ‘疒’으로 代替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래의 偏旁인 ‘虫’은 原因의 層位에 있는 것이고 ‘疒’은 그 原因의 結果라는 새로운 層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痲(蛔)’가 있는데, 이것 역시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中上段階離隔

이 단계는 본래는 전혀 相關성이 없는 것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代替와 被代

9)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69, 84쪽.

10) 張自烈, 『續修四庫全書·正字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540쪽.

11) 行均, 『龍龕手鏡』, 北京, 中華書局, 1985, 504쪽.

12) 丁度 等, 『字典彙編·集韻』,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338쪽.

替偏旁이 서로 의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熔(金-火) 『說文解字·金部』에서는 “鎔, 冶器法也. 從金容聲”¹³⁾이라 하고, 『字辨·體辨三』에 의하면 “鎔·熔. 熔新出字, 古無. 上列者爲正”¹⁴⁾이라 말하고 있는 바, ‘鎔’이 正字이고 ‘熔’은 後起字이다. 즉 ‘熔’은 ‘冶鑄’의 意味를 갖고 있는 ‘鎔’에서 ‘金’을 ‘火’로 代替한 것이다. 여기에서 偏旁인 ‘金’과 ‘火’는 따로 떼어 놓고 보면 字義上 어떤 聯關性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冶鑄’란 본래 ‘火’를 이용하여 冶金을 하는 것이므로 ‘金’을 강조해 만든 ‘鎔’을 ‘火’로 代替해 ‘熔’字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鎔·熔’에서의 ‘金·火’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金’과 ‘火’가 특정 글자의 偏旁으로 사용될 때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나, 그 상황을 벗어나면 전혀 聯關性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는 ‘銷(銷) 鑊(鑊)’ 등이 있다.

劑(刀-言) 『龍龕手鏡·言部』에 의하면 “劑, 子爲在世二反, 正作劑, 刀也”¹⁵⁾라 말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劑’의 正字는 ‘劑’이다. 그런데 이 ‘劑’에 대해 『康熙字典』에서는 “『周禮·地官·司市』以質劑結信而止訟. 『註』質劑, 謂兩書一札而別之也. 若今下手書, 言保物要還矣. 『疏』質劑謂券書. 恐民失信, 有所違負, 故爲券書結之, 使有信也. 大市以質, 小市以劑, 故知質劑是券書”라 말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劑’는 곧 ‘質劑’로서, 지금의 ‘약속어음’이라 할 수 있다. 본래 ‘質劑’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무판 위에 서로 간의 약속 내용을 기록하고, 이 나무를 둘로 쪼개 나누어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가, 후에 변제할 때 이 둘을 맞추어 보고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약속 증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쪼갬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偏旁에 ‘刀’가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약속이란 것이 반드시 문서로

13)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69, 710쪽.

14) 中華民國教育部, 『異體字字典』(<http://dict.variants.moe.edu.tw/>), a04330-001에서 재 인용.

15) 行均, 『龍龕手鏡』, 北京, 中華書局, 1985, 43쪽.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약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 증서를 나타내는 '劑'에서 '刀'를 '말'을 의미하는 '言'으로 代替해 만든 異體字가 '濟'이다. 그런데 본래의 偏旁인 '刀'와 代替偏旁인 '言'은 그 自體의 意味로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그것이 '劑·濟'의 偏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만 '質劑'의 기능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관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5) 高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代替偏旁이 본래의 被代替 偏旁字義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지만, 代替偏旁의 字義가 본래 正字의 被代替偏旁의 字義가 아닌 正字 그 전체 字義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𢇛(儿-心) 『龍龕手鑑·心部』에 “𢇛·𢇛·𢇛·𢇛, 許恭反, 恐也. 咎也, 惡也”¹⁶⁾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𢇛·𢇛’은 모두 同字이다. 그런데 ‘𢇛’이 ‘𢇛’의 異體字이므로 ‘𢇛’은 ‘𢇛’의 異體字가 된다. 즉 ‘𢇛’에서 하단부의 偏旁인 ‘儿’을 ‘心’으로 代替한 것이다. 여기에서 代替와 被代替偏旁인 ‘儿’과 ‘心’은 字義상으로 어떠한 연관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本字인 ‘𢇛’의 字義가 ‘恐也. 咎也, 惡也’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미는 모두 사람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異體字에서는 偏旁을 正字의 字義와 관련지어 ‘心’으로 代替한 것이다. 즉 被代替偏旁과는 字義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이 構造上으로만 代替하고, 실질적으로는 正字의 字義를 代辯하는 偏旁으로 代替한 것이다.

閥(人-門) 『說文解字·人部』에 “𠂔, 靜也. 從人血聲. 詩曰, 閥宮有𠂔”¹⁷⁾라 하고, 段注에 의하면 “靜者, 審也, 悉也, 知審諦也. 魯頌曰, 閥宮有𠂔. 傳曰,

16) 行均, 『龍龕手鑑』, 北京, 中華書局, 1985, 202쪽.

17)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69, 377쪽.

恤, 淸淨也, 淨乃靜之字誤. 周頌, 假以溢我. 傳曰, 溢, 愼也. 許作譏以謚我. 謚靜語也. 一曰無聲也”¹⁸⁾라 하였으며, 또한 『康熙字典』에서는 “恤, 『唐韻』況逼切, 『集韻』·『韻會』忽域切, 兄入聲. 寂也, 靜也”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𡇗’의 正字는 ‘恤’이고, ‘恤’의 字義는 ‘靜也’이며, ‘𡇗’은 正字의 偏旁인 ‘人’을 ‘門’으로 代替한 것이다. 그런데 代替와 被代替偏旁인 ‘人’과 ‘門’은 字義上으로 어떠한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 즉 ‘門’은 본래의 偏旁인 ‘人’의 字義를 代替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字形의 構造上으로 偏旁을 代替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恤’의 전체 의미를 代辯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超高段階離隔度

이 단계는 代替와 被代替偏旁들이 字形만 類似할 뿐, 字義上으로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正字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것들로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𡇗(亻-人) 『正字通·心部』에 의하면 “𡇗, 罔甫切, 音武, 悵也. 又𡇗狀自失貌, 忽有覺之意”¹⁹⁾라 하고, 또 『正字通·人部』에서는 “𡇗, 同𡇗”²⁰⁾라 말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𡇗’는 어루만진다는 뜻을 가진 ‘𡇗’의 異體字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亻’과 ‘人’은 字意上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오직 字形의 유사함으로 인해 서로 互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𡇗(倅)·𡇗(憧)·𡇗(儻)·𡇗(仿)·𡇗(任)·𡇗(伐)’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偏旁으로 사용된 ‘亻·亻·亻·亻·亻·牛’도 역시 字形의 유사함으로 인해 偏旁을 서로 代替하여 互用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離隔度에 따른 각 段階에 속하는 글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실

18)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69, 377쪽.

19) 張自烈, 『續修四庫全書·正字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410쪽.

20) 張自烈, 『續修四庫全書·正字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86쪽.

같이 주체와 행위의 관계, 또는 ‘麩(餅)·糲(餹)’과 같이 재료와 그로 인한 관련 행위를 나타내는 字義로 대체함으로써 字義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글자로 대체하는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恥(耻)·默(默)·豕(豚)’에서의 偏旁인 ‘心·山’, ‘犬·丈’, ‘血·月’과 같이 단순히 자형만 유사하고 字義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形符를 代替해 만든 異體字들에 대해 단순히 字義가 매우 밀접하여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字義의 관련성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離隔度에 속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한 字義관계를 보여준다. 즉 字義의 性格上으로 볼 때, 재료라는 특성을 가진 것끼리라든가 혹은 동일 유형(예컨대 동물군 혹은 식물군)끼리 대체되는 同等位 代替도 있는가 하면, 主客關係라든가 혹은 部分과 全體 關係를 나타내는 偏旁끼리 서로 代替되는 差等位 代替도 존재한다. 예컨대 ‘姪(孩)·媯(偶)’와 같은 경우, 偏旁인 ‘人’ 모두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同等位 代替라 할 수 있고, ‘狔(狔)·豨(豨)’는 偏旁인 ‘犬·豕·豕’는 모두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帙(帙)·篋(篋)’에서의 偏旁 ‘巾·衣’는 모두 실로 만든 생상품이라는 측면, ‘臍(臍)·臍(臍)’에서의 偏旁 ‘肉·骨’은 모두 인체의 일부분이라는 측면, ‘覘(覘)·璣(璣)·鑿(鑿)·繩(繩)·鍛(鍛)’에서의 ‘木·竹’과 ‘玉·金’, ‘金·糸’, ‘石·金’은 재료라는 측면에서 同等位 代替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訖(信)·媯(媯)’에서의 ‘人·心’과 ‘躡(跳)·躡(躡)·躡(躡)’에서의 ‘足·走’는 주체와 행위의 관계를 나타내고 ‘埴(陶)·埴(陶)’에서의 ‘土’ ‘裯(網)·裕(裕)’에서의 ‘糸·衣·巾’은 재료와 생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差等位 代替라 할 수 있다. 한편 ‘悖(悖)·懣(懣)’와 같은 경우는 ‘心’과 ‘言’이 差等位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의 同等位 代替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동일 부류의 字義를 가진 偏旁에 의한 代替라고 볼 수 없다. 즉 層位上으로 본다면 同等位라 할 수 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서만 대체가 가능한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同一 正字의 異體字에 同等位와 差等位가 並存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嫗·媯(侮)’의 경우, 異體字의 偏旁인 ‘女’는 正字의 偏旁인 ‘人’과 同等位라 할 수 있지만 ‘心’은 差等位로 보아야 한다. 또 ‘坂·坂(阪)’에서 正字의 偏旁인 ‘阜’와 비교할 때 異體字의 偏旁인 ‘山’은 同等位라 할 수 있지만 ‘土’는 差等位에 속한다. 또 ‘翹(翹)·鷗(翹)·鷗(翹)’와 같은 경우, 正字의 偏旁인 ‘羽’는 異體字의 偏旁인 ‘毛’와는 同等位라 할 수 있지만, 다른 異體字의 偏旁인 ‘鳥’는 差等位에 속한다. 한편 동일한 正字에 속한 異體字는 아니지만, 특정 의미를 가진 偏旁의 경우, 그 偏旁을 대체하는 다른 偏旁이 同等位와 差等位로 나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糸’가 正字의 偏旁인 被代替偏旁인 경우, 異體字에서 나타나는 代替偏旁들은 ‘韃(紕)·韃(紕)’에서의 ‘革’과 같이 ‘糸’와는 같은 재료로서의 同等位를 나타내는 異體字들이다. 그런가 하면 ‘纒(纒)·纒(纒)’에서의 ‘巾’이나 ‘衣’는 일종의 완성품으로서 ‘糸’와는 層位가 다른 差等位代替라 할 수 있다. 또 ‘樓(樓)·樓(樓)·樓(樓)’에서의 ‘人’을 대체하는 ‘身·頁’은 모두 인체의 일부 분으로서 ‘人’과는 同等位라 할 수 있지만 ‘趨(促)·遠(偵)·覘(伺)·作(作)’에서 ‘人’을 代替한 ‘足·辵·見·攴’은 모두 ‘人’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人’과는 差等位라 할 수 있다.

5. 段階別 形符代替異體字 考釋能力 向上 資料로 活用

일반적으로 形符代替異體字는 字義가 類似한 偏旁으로 代替한다는 관념이 매우 강하여, 偏旁의 약간만 字義가 달라도 이를 正字로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代替와 被代替偏旁의 字義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계별로 나타나는 字義의 유형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異體字의 正字를 考釋하는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偏旁이 ‘阜’인 正字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異體字는 ‘坂(阪)’과 같이 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이자 의미를 갖는 ‘山’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中段階로 넘어가 좀 더 字義를 확장시킨 偏旁으로 代替한다면 ‘隄(隄)·隄(隄)’과 같이 阜를 구성하

는 재질인 ‘石’이나 ‘土’로 代替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字義를 가진 것으로서, ‘輪(輪)’과 같이 ‘阜’와 동일하게 自然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田’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로서 ‘人’을 偏旁으로 하는 正字의 異體字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低段階에서는 ‘僂(僂)’와 같이 사람의 하나인 ‘女’로 대체한 異體字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中段階로 넘어가면 ‘癡(癡)·癡(癡)’과 같이 ‘人’을 구성하는 인체로서의 ‘身’이나 ‘頁’로 대체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여기서 좀 더 폭을 넓히면 ‘趨(促)·作(作)’과 같이 사람이 主體로서 행동하는 ‘走’나 ‘支’으로 대체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단계로서 超高度階에서는 ‘侍(侍)·撫(撫)·伐(伐)·擗(擗)’와 같이, 字義上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字形만 비슷한 ‘彡·彡·牛·彡’로 대체되는 것까지 正字 추정의 대상으로 하는 高찰을 함으로서, 異體字의 考釋 領域을 확대해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을 적용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正字에서 ‘肉’을 偏旁으로 하는 글자의 異體字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低段階에서는 ‘腿(腿)·胫(胫)’과 같이 ‘肉’으로 구성되는 ‘足’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서 中段階로 가면 ‘羴(羴)·膾(膾)’와 같이 ‘肉’이 단순히 구성하는 신체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의 동물을 뜻하는 ‘羊’이나 ‘魚’로 代替되는 경우까지 발전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경우도 역시 ‘胚(胚)·肢(肢)·胖(胖)·腓(腓)’에서와 같이 字義에 상관없이 오직 字形의 유사함만으로 인해 偏旁이 ‘血·身·目·耳’으로 代替된 超高度階의 異體字도 있다는 假定 下에 考釋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서 위와는 달리 正字의 경우에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腓(腓)·腓(腓)’와 같은 경우, 正字의 偏旁인 ‘骨’과 ‘食’이 異體字에서는 ‘肉’으로 代替되는 것이므로 위와는 상대되는 立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이것도 역시 단계별로 字義의 離隔度가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의 상황을 고려한 偏旁을 선택하여

代替 適用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正字를 考釋해내는 능력이 점차 향상될 수가 있을 것이다.

6. 結語

위에서 形符代替異體字들의 代替偏旁과 被代替偏旁의 字義 聯關性에 따라 離隔度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각 段階에 속하는 異體字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각 段階에 속하는 異體字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特性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離隔度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異體字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단계별 體系性을 갖추는데 있다. 偏旁代替異體字는 매우 많고, 이들은 類型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異體字 교육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 성과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超低段階나 低段階, 혹은 中段階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中上段階에 대한 異體字를 이해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것이며, 또한 中上段階에 대한 확실한 내용 파악이 없이는 高段階의 離隔度를 갖는 異體字들을 理解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超高段階의 異體字에 대해서는 理解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 段階別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와 같은 類型의 異體字에 대한 理解度는 더욱 증진되며, 향후의 연구 성과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명확한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다. 물론 中上段階는 어느 정도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高段階와 超高段階에 속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低段階와 中段階 사이의 離隔度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연구 과정의 편의 때문에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경계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면서 얼마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參考文獻〉

- 梅膺祚,『字典彙編·字彙』,北京:國際文化出版公司,1993.
司馬光,『類篇』,北京:中華書局,1984.
吳任臣,『續修四庫全書·字彙補』,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張自烈,『續修四庫全書·正字通』,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丁度等,『字典彙編·集韻』,北京:國際文化出版公司,1993.
韓孝彥等,『續修四庫全書·四聲篇海』,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行均,『龍龕手鏡』,北京:中華書局,1985.
許慎撰,段玉裁注,『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69.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http://dict.variants.moe.edu.tw/>)
拙稿,「異體字 字形類似偏旁의 互用 類型 地圖 構築」,『中國言語研究』第43輯,서울:韓國中國言語學會,2012.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of Variant Forms That is Replaced
Meaning Component According to Meaning Estrangement Ratio Between
Replacement and be Replaced

Lee, Kyoo-Kap (Yonsei Univ.)

This study pick out variant forms that is replaced meaning component, and divide six category stage according to meaning estrangement ratio between replacement and be replaced meaning component. And study there are some variant forms that is replaced meaning component in each other category, consider what is their feature. The most important purpose is to aid assistance for study of variant forms that is replaced meaning component through research in stage as meaning estrangement ratio.

Key words: variant forms, meaning component, replacement, meaning estrangement ratio, stage

關鍵詞: 異體字, 形符, 代替, 字義離隔度, 段階

이 논문은 2016년 4월 3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